



(베드로 사도의 회개), 고야, 1823-25년경, 필립스 컬렉션, 워싱턴

“나 또한 너에게 말한다.
너는 베드로이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터인즉,
저승의 세력도 그것을 이기지 못할 것이다.”
(마태 16,18)

[제1독서] 이사 22,19-23

[화답송] 시편 138(137),1과 2ㄴ.2ㄱ과 3.6과 8ㄴㄷ
(◎ 8ㄴㄷ 참조)

◎ 주님, 당신 자에 영원하시니 손수 빛으신 것들 저버리지 마소서.



- 주님, 제 마음 다하여 당신을 찬송하나이다. 제 입의 말씀을 들어 주시기에, 천사들 앞에서 찬미 노래 부르나이다. 거룩한 성전 앞에 엎드리나이다.◎
- 당신은 자애롭고 진실하시니, 당신 이름 찬송하나이다. 제가 부르짖던 날, 당신이 응답하시고, 저를 당당하게 세우시니, 제 영혼에 힘이 솟았나이다.◎

- 주님은 높이 계셔도 낮은 이를 굽어보시고, 멀리서도 교만한 자를 알아보시나이다. 주님, 당신 자에는 영원하시옵니다. 당신 손수 빛으신 것들 저버리지 마소서.◎

[제2독서] 로마 11,33-36

[복음 환호송]

◎ 알렐루야.

- 너는 베드로이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저승의 세력도 교회를 이기지 못하리라.◎

[복음] 마태 16,13-20

너는 베드로이다. 나는 너에게 하늘 나라의 열쇠를 주겠다.

- 13 예수님께서 카이사리아 필리피 지방에 다다르시자 제자들에게,
“사람의 아들을 누구라고들 하느냐?” 하고 물으셨다.
- 14 제자들이 대답하였다.
“세례자 요한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어떤 이들은 엘리야라 하고,
또 어떤 이들은 예레미야나 예언자 가운데 한 분이라고 합니다.”
- 15 예수님께서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하고 물으시자,
16 시몬 베드로가
“스승님은 살아 계신 하느님의 아드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 17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셨다.
“시몬 바르요나야, 너는 행복하다! 살과 피가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것을 너에게 알려 주셨기 때문이다.
- 18 나 또한 너에게 말한다. 너는 베드로이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터인즉,
저승의 세력도 그것을 이기지 못할 것이다.
- 19 또 나는 너에게 하늘 나라의 열쇠를 주겠다.
그러니 네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네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 20 그런 다음 제자들에게,
당신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분부하셨다.

성화 묵상



〈베드로 사도의 회개〉, 고야

스페인의 화가 고야는 어느 한 유파에 속하지 않은 채 독창적인 화법으로 인간의 내면을 잘 드러낸 작품들을 남겼다.

베드로 사도는 예수로부터 받은 천국의 열쇠를 자신을 상징하는 바위 앞에 놓고 무릎을 꿇고 있다. 베드로는 칠후 같은 어둠 속에서도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완수할 수 있도록 은총을 청하면서 하늘을 우러러 간절히 기도를 바치고 있다.

(정웅모 신부, 복음을 담은 성화)

†복음 묵상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사람의 아들을 누구라고 하느냐?” 하고 질문하십니다. 제자들은 “세례자 요한, 엘리야, 예언자” 라고 답을 드립니다. 명칭은 각기 다르나 공통점이 있는데, 하느님의 심판을 선포하고 세상 마지막 날을 예고하는 인물들이라는 것입니다. 이 대답에서 당시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였는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생각을 물으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베드로가 답합니다. “스승님은 살아 계신 하느님의 아드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렇습니다. 제자들에게 연이어 질문하시는 예수님과 정답이 된 베드로의 신앙 고백 때문에 마음과 마음으로 미소가 번집니다.

어느 날 부처님이 제자들을 영산에 모이게 합니다. 그리고 한마디 말씀도 없이 연꽃 한 송이를 손가락 끝으로 잡은 채 제자들에게 보입니다. 다들 그 뜻을 알지 못하여 말 없이 스승의 손가락 끝에 들린 꽃만 보는데, 그 가운데 ‘가섭’만이 그 뜻을 깨닫고 빙그레 미소 짓습니다. 그래서 이를 ‘염화미소’라 하고, ‘이심전심’이라고도 합니다. 부처님이 돌아가신 뒤에 법을 가섭에게 맡겼는데 마음으로써 마음을 전했다고 하여 생긴 말입니다.

그동안 스승이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많은 가르침을 주시고, 기적을 통하여 그 의미를 밝혀 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서는 제자들이 당신에 대하여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궁금하셨던 것입니다. 이때 베드로의 대답은 가섭의 미소처럼 완벽하였고, 베드로가 받은 하늘 나라의 열쇠는 가섭이 부처님에게 받은 법처럼 하늘의 뜻을 땅에 이루게 하는 도구였습니다.

제2독서인 바오로의 로마서 말씀은 베드로가 예수님에게서 받은 하늘 나라의 열쇠가 얼마나 큰 것인지 미루어 짐작하게 합니다. “오! 하느님의 풍요와 지혜와 지식은 정녕 깊습니다. 그분의 판단은 얼마나 헤아리기 어렵고 그분의 길은 얼마나 알아내기 어렵습니까? 누가 주님의 생각을 안 적이 있습니까? 아니면 누가 그분의 조언자가 된 적이 있습니까?” (박기석 사도 요한 신부)

“세상을 치유하기 위해선 이기주의자도 무관심한 사람도 아닌, 형제들이어야 합니다.”



“세상 치유”: 신앙과 인간의 존엄성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안녕하세요!

코로나19 대유행은 우리 모두가 얼마나 취약하고 서로 연결돼 있는지를 드러내 보였습니다. 피조물을 포함해 소외된 이들부터 전염병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은 사람들에게 이르기까지, 서로를 보살피지 않으면 우리는 세상을 치유할 수 없습니다.

최근 몇 달 동안 이웃에 대한 인간적인 사랑과 그리스도교적인 사랑을 증거하고, 자신들의 건강이 위협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병자들을 위해 헌신한 많은 사람들의 노고는 칭찬받아야 합니다. 그들은 영웅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싸워 이겨야 할 유일한 질병은 코로나바이러스가 아닙니다. 코로나19 대유행은 더 광범위한 사회적 병폐도 드러냈습니다. 이 병폐들 가운데 하나는 바로 인간에 대한 왜곡된 시각입니다. 곧, 인간의 존엄과 상호관계적 특징을 망각하는 시각입니다. 때로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이용하고 버려야 할 물건으로 생각합니다. 실제로 이러한 유형의 시각은 인간을 소모품처럼 여기는 이기주의적이고 공격적인 ‘버리는’ 문화를 제대로 보지 못하고 부추깁니다(프란치스코 교황, 권고 「복음의 기쁨」(Evangelii Gaudium), 53항; 회칙 「찬미받으소서」(Laudato Si), 22항 참조).

신앙의 관점에서 우리는 하느님이 사람들을 다른 방식으로 바라보신다는 점을 알고 있습니다. 하느님은 우리를 물건이 아니라, 사랑하고 사랑받을 수 있는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우리를 당신의 모상대로

창조하셨습니다(창세 1,27 참조). 이러한 방식으로 하느님은 우리에게 유일한 존엄을 부여하셨습니다. 우리가 피조물을 존중하면서 당신과 친교를 이루고, 우리의 형제·자매들과 친교를 이루며 살도록 초대하셨습니다. 말하자면 친교와 조화 안에서 살도록 말입니다. 창조는 조화로움(armonia)이며, 우리는 그 안에서 살도록 부름 받았습니니다. 이 친교 안에서, 친교인이 조화로움 안에서, 하느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탄생시키고 보호하며(창세 1,28-29 참조), 일하고 땅을 돌볼 수 있는 능력을 주셨습니다(창세 2,15: 「찬미받으소서」, 22항 참조). 조화롭지 않다면, 생명은 번성하고 보존될 수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조화롭지 않다면, 생명은 파괴될 것입니다.

조화롭지 못한 이기주의적인 시각의 사례를 우리는 복음서들에서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자신의 아들들을 위해 예수님께 청원한 사건입니다(마태 20,20-28 참조). 그녀는 자기 아들들이 새 임금의 오른쪽과 왼쪽에 앉을 수 있기를 바랐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새로운 시각(비전)을 제시하십니다. 곧, 섬김과 다른 사람을 위해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는 비전을 제시하십니다. 이어 곧바로 눈먼 두 사람을 보게 하시고 그들을 당신 제자로 삼으심으로써 이를 확인시켜 주십니다(마태 20,29-34 참조). 인생에서 출세하려 애쓰고 다른 사람보다 우월하려 애쓰면, 조화로움은 파괴됩니다. 이는 지배의 논리이며, 다른 사람들을 지배하는 논리입니다. 조화로움은 이와 전혀 다릅니다. 바로 섬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형제·자매들, 특히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관심을 기울일 수 있는 눈을 갖출 수 있도록 주님께 청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로서 우리는 무관심하거나 이기주의적이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이것들은 조화로움을 거스르는 두 가지 나쁜 태도입니다. **무관심하다는 것은 다른 쪽으로 시선을 돌리는 것입니다. 이기주의적이라는 것은 자신의 관심사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느님이 창조하신 조화로움은 우리에게 다른 사람들, 다른 사람들의 필요와 문제점들을 바라보게 하며, 친교를 이루도록 요구합니다. 우리는 인종이나 언어, 혹은 각자 처한 상황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들 안에서 인간의 존엄성을 알아볼 수 있길 바랍니다. 하느님이 창조하신 조화로움은 우리로 하여금 인간을 중심에 두고 인간의 존엄성을 알아볼 수 있게 해줍니다.

제2차 바티칸 공의회는 이러한 인간 존엄성이 “하느님의 모상대로 창조되었기 때문에”(사목 헌장 『기쁨과 희망』(Gaudium et Spes), 12항) 양도할 수 없다고 강조합니다. 인간 존엄성은 모든 사회 생활의 기본이며 행동원칙들을 결정합니다. 현대 문화 안에서 인간의 양도할 수 없는 존엄성의 원칙에 가장 가까운 언급은 「세계인권선언문」입니다. 성 요한 바오로 2세 교황님은 이를 “인류의 길고 어려운 여정에 세워진 이정표”, “인간 양심의 가장 높은 표현 중 하나” 라고 정의하셨습니다. 그리고 권리는 개인적일뿐만 아니라 사회적입니다. 곧, 민족들과 국가들의 것입니다. 사실, 인간은 자신의 개인적 존엄성 안에서 삼위일체이신 하느님의 모상대로 창조된 사회적 존재입니다. 우리는 사회적 존재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회적 조화로움 속에서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이기심이 있을 때 우리의 시선은 타인과 공동체를 향하지 않고, 우리 자신에게로 돌아옵니다. 이것이 조화로움을 파괴하면서 우리를

추락하고 나쁘고 이기적으로 만듭니다.

모든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새로운 인식은 여러 가지 사회·경제·정치적 영향을 끼칩니다. 형제와 모든 피조물이 아버지의 사랑을 받은 선물이라고 보는 시각은 관심과 보살핌과 놀라움의 행동을 불러 일으킵니다. 따라서 **신앙인은 이웃을 낮은 사람이 아니라 형제로 관상하며, 경멸이나 적대감이 아니라 연민과 공감으로 바라봅니다.** 그리고 **신앙의 빛으로 세상을 관상하면서, 하느님 은총의 도움으로, 자신의 창의성과 역사의 드라마를 해결하려는 열정으로 세상의 발전을 위해 노력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능력을 신앙에서 나오는 책임으로 인식하고 발전시키며, 인류와 피조물을 위한 하느님의 선물로 생각하고 발전시킵니다.**

우리 모두는 모든 사람들에게 똑같이 영향을 끼치는 바이러스의 치료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신앙은 인간의 존엄성이 침해당하는 상황 앞에서의 무관심에 대응하고자 진지하고 적극적으로 노력하라고 우리를 촉구합니다. ‘버리는’ 문화와 동반하는 무관심의 문화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와 상관없는 일이야. 관심없는 일이야.” 신앙은 개인적이고 집단적인 이기주의에서, 예를 들면 정당이기주의에서, 우리가 회심하고 치유되도록 우리 자신을 내어 맡기라고 언제나 요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가 인류 가족의 일원이 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재발견할 수 있도록 “우리의 시력을 회복시켜 주시길” 빕니다. 그래서 이러한 시선이 모든 사람에 대한 연민과 존중, 그리고 우리 공동의 집을 돌보고 보호하기 위한 구체적인 행동으로 실현되길 바랍니다.

코로나19 집단 감염 예방을 위해 본당에서 지켜야 할 수칙

★아래의 수칙을 철저히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 주일 미사에 참여할 수 없는 경우

- ▶ 발열, 기침, 호흡기 증상, 오한, 근육통, 두통, 인후통, 후각·미각 소실, 폐렴 등 코로나19 의심 증상자
- ▶ 가족이나 같은 시설에서 함께 생활하는 사람이 코로나19 증상이 있는 경우
- ▶ 2주 이내에 해외나 타주에 다녀오거나, 다녀온 가족이나 친구, 지인과 접촉한 경우(2주 동안)
- ▶ 확진자가 발생했던 기관이나 장소를 방문한 이력이 있는 경우(2주 동안)

• 주일 미사를 자제해야 하는 경우

- ▶ 노약자 및 고령자, 임산부, 만성질환자, 어린이 등 면역에 취약한 사람

위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집에서 **방송미사, 묵주기도, 성경봉독, 선행 등으로 의무를 대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링톤 교구의 모든 신자들은 추후 공지가 있을 때까지 일요일과 의무의 날에 미사에 참석할 의무가 면제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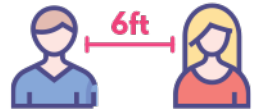
• 성당 입장시 준수 사항

- ▶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
- ▶ **미사 참여자 명단**을 꼭 확인해야 합니다.
- ▶ **손 세정제**로 손을 소독합니다.
- ▶ 사회적 **거리두기(6FT)**를 준수해야 합니다.
- ▶ **발열 체크**를 해야 합니다.(99.5°F 이상 입장 불가)



• 성당 안에서 미사 거행 시 준수 사항

- ▶ 봉사자의 안내에 따라 **6FT 간격 표시된 자리**에 앞자리부터 차례로 앉습니다.
- ▶ **미사 시간 내내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성체를 모실 때만 잠깐 벗습니다.)
- ▶ 성경과 성가집, 기도문 등은 공용이 아닌 **개인**의 것만 사용합니다.
- ▶ 성가나 기도문 합송은 되도록 피하고 신자들의 응답 부분은 해설자가 대신 합니다.
- ▶ 봉헌이나 영성체 시에도 일정한 **개인 간격을 유지**하도록 합니다.
- ▶ 영성체 전에 사제가 미리 ‘그리스도의 몸’ 이라고 하면 신자들은 ‘아멘’ 이라고 응답합니다.
(**영성체 시에는 마음속으로 ‘아멘’을 합니다.**)
- ▶ 미사 도중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때 마스크를 썼더라도 옷소매로 입과 코를 가려서 합니다.
- ▶ 미사가 끝나면 **일정한 간격을 유지**하며 질서 있게 **즉시 성당에서 퇴장**해야 합니다.
(다음 미사를 위해 방역과 환기가 필요합니다.)



• 일반 준수사항

- ▶ 마스크 착용, 사회적 거리두기(6FT), 손 씻기 및 소독의 생활화
- ▶ 성당 건물 안에서의 음식물 섭취는 금합니다.
- ▶ 봉사자들의 안내에 적극 협조하여 질서를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 ▶ 성당을 다녀간 후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을시 즉시 성당에 알려야 합니다.



1 주일 미사 참여 신청에 대하여

- 주일 미사 참여를 원하시는 분은 본당 웹사이트의 **“미사 참여 신청”**을 클릭해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많은 분들이 미사 참여를 원하고 계시나 현재 미사를 자유로이 재개하기에는 결코 안전한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100명 이내로 제한**하여 미사를 봉헌합니다.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서 **미사 참여자 명단**을 작성해 놓아야 하고, 참여자 수가 제한되어 있기에 사전 신청을 받고 추첨으로 100명씩 선정하여 미사를 봉헌하고 있습니다.
- 온라인 신청이 어려우신 분은 성당 사무실(703-968-3010)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2 평일 미사 재개

- **평일 미사 시간**
 - * 화요일 : 오후 7시 30분
 - * 수요일 : 오전 11시
 - * 금요일 : 오후 7시 30분
- 평일 미사 참여자가 지켜야 할 수칙 또한 주일 미사와 동일합니다.
 - * **마스크 착용** * **거리 두기**
 - * **참여자 명단 작성** * **발열 체크** * **손 소독**
- 보다 안전하게 미사를 함께 봉헌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3 한마음 기도 시간에 대하여

- 매일 밤 9시 한마음 기도는 ‘한반도의 평화와 우리 본당의 일치와 화합을 위해’ **주모경** 1번씩 바쳐 주시고, 묵주기도와 나머지 기타 기도들은 원하는 시간에 자유로이 바쳐 주시기 바랍니다.

4 본당 웹사이트 적극 활용

- 코로나19 로 인해 자주 변경되는 상황을 본당 웹사이트에 업데이트하고 있으니 적극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컴퓨터뿐만 아니라 스마트폰, 모바일**로도 보기 쉽게 바꾸었습니다.
온라인 봉헌이 신설되었고, 텍스트 메시지나 이메일로 본당 소식을 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많은 교우들이 보다 편리하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5 첫영성체 예식

-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 미루어졌던 첫영성체 예식을 다음과 같이 거행합니다. 오랜 시간 동안 준비한 아이들이 예수님의 성체를 처음으로 모시는 기쁨 속에서 더욱 사랑과 신앙이 자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 **일시 : 2020년 8월 26일 (수) · 장소 : 성당**
- * 코로나19로부터 어린이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하여 **첫영성체 어린이들과 가족들만 미사에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유아세례 안내

- 그동안 코로나19 상황으로 유아세례를 거행하지 못하였습니다. 지정된 날에 합동으로 유아세례를 거행하는 것은 안전하지 않다고 판단되어 **개별적**으로 유아세례를 거행합니다.
- **유아세례는 매주 토요일 오후 2시와 3시에 있으니 사무실로 미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7 2021년 본당 달력광고 접수

- 2021년도 본당 달력에 광고 게재를 원하시는 분은 사무실(703-968-3010)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가격 : \$600

성소후원회 공지사항

본당 성소를 위한 미사와 묵주기도 그리고 후원금 모금

- 저희 본당에서도 2020년 가을학기부터 두 명의 청년이 신학교에 들어가 사제 양성의 여정을 시작합니다. 성소후원회에서는 본당 신학생들과 성소를 위해 교우 여러분들과 **미사 참여 (매달 둘째 주 금요일)**와 **묵주기도**의 시간을 함께 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신학생들과 성소를 위한 후원회비와 후원금 모금**을 두 가지 방법으로 실시하오니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당에서는 성소 후원회비와 후원금에 대해 연말 세금 감면 혜택을 받으실 수 있도록 정산해 드립니다.)

▶ 온라인 봉헌 : 성당 홈페이지

봉헌하기 > 봉헌종류 - ‘성소후원’ 선택 > Pay Now

▶ 우편 봉헌 : 성당

체크 메모란에 ‘성소후원’ 명기
4712 Rippling Pond Dr. Fairfax, VA 22033

코로나19 극복을 청하는 기도

자비로우신 하느님 아버지,

‘코로나19’ 확산으로 혼란과 불안 속에 있는
저희와 함께 하여 주십시오.

어려움 속에서도 내적 평화를 잃지 않고

기도하도록 지켜주시고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십시오.

‘코로나19’ 감염으로 고통받는 이들에게

치유의 은총을 내려주시고,

이들을 헌신적으로 돌보고 있는

의료진들과 가족들을 축복하여 주십시오.

또한 이 병으로 세상을 떠난 분들의 영혼을 받아 주시고,

유족들의 슬픔을 위로하여 주십시오.

국가 지도자들에게 지혜와 용기를 더해주시고,

현장에서 위험을 감수하며

투신하고 있는 관계자들을 보호해주십시오.

특별히 이런 상황에서 더 큰 위험에 노출되는

가난하고 소외된 사회적 약자들을

저희가 더 잘 돌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어려운 시기를 이겨내고자 애쓰는 저희 모두가
생명과 이웃의 존엄,

사랑과 연대의 중요성을 더 깊이 깨닫게 하시고

배려와 돌봄으로 희망을 나누는 공동체로

거듭나는 은총 내려주시길 간구합니다.

우리의 도움이신 성모님과 함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경 필사 5년 계획 (2017-2021)

- 2021년까지 진행되는 성경(구약과 신약) 필사에 신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 **연중 제21주 주간: 예레 42-45, 야고 4**

지난 주 우리들의 정성

2020년 8월 16일(연중 제20주일)

성모승천 대축일 미사헌금	\$1,561.00
주일헌금	\$1,730.00
교무금	\$5,400.00
교무금(크레딧카드)	\$800.00
감사헌금	\$100.00
2차헌금	\$0
합계	\$9,591.00

♥ 주일헌금 및 2차 헌금의 세금공제를 원하시는 분은
세금공제 확인용 봉헌예물 봉투를 사용해 주십시오.



AM 1310 라디오 가톨릭 프로그램

8월 26일(수) 오전 6:15-6:45 | 8월 29일(토) 오전 8:00-8:30

- 워싱턴 가톨릭 소식
- 황창연 신부님의 성서특강 ‘이집트문명으로 간 아브라함’

※ www.dc1310.com에서 ▶ 생방송 듣기 를 선택하시면
스마트폰을 통해 생방송으로 청취를 하실 수 있습니다

버지니아 성 정 바오로 성당 제공 KACM TV 하이라이트

8월 27일(목) 오후 5:00-6:00

8월 28일(금) 저녁 8:00-9:00

8월 30일(일) 오전 6:00-7:00



- 특집: 황창연 신부의 행복 특강 - 자신 꺼안기 4B
- 걸어서 만나는 신앙의 숨결 - 숨어살다 순교한 칠곡 한티 마을 성지

기도해 주세요

♥ 병중에 계신분

고상균(스테파노), 김경화, 온규희(발바라), 정맹금(테레사), 김영식(요셉), 박상연(라파엘), 정중희(발바라), 김만복(아네스), 전원후(마리아), 박제중(요셉), 김용구(베네딕), 김영자(세레나), 양소자(루시아), 박용재(토마스), 오인균(바오로), 이수선, 백유미(세실리아), 안순겸(모니카), 최재근(시몬), 김화순(세실리아), Lauren Maguire, 고틀순(젼마), 최창일(토마스), 강애자(카타리나), 황수현(바오로), 박숙희(베로니카), 박윤희(스텔라), 박승재(가비노), 장미래(아네스), 한영광(스테파노), 김성례(안나), 이영민 (다윗), 한양수 (스테파노)